

2. 석유화학 산업

일 시: 1994년 1월 17일 오후 2-4시
장 소: 본원 회의실
사 회: 오성중 수석연구원(현대경제사회연구원)
참석자: 김경태 책임연구원(산업연구원)
 백운대 이사(현대석유화학)
 유철호 이사((주) 럭키)
정 리: 신승철 책임연구원(현대경제사회연구원)

사회자: 오늘의 토론 범위는 대체로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UR의 협정 내용 중에서 석유화학 분야에 영향을 미칠 주요 협정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UR이 국제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가능하면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로 UR 타결이 우리의 수출입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부나 기업쪽의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UR의 협정 내용 중 석유화학산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측면에서 석유화학 산업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 김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석유화학 산업에 영향 미칠 주요 협정 내용

김 연구원: UR의 기본 목표 중 중요한 것이 관세라고 볼 수 있는데, 협정 내용 중 관세 분야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를 1/3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양허 품목을 최대한 확대를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째는 개도국인 경우는 예외로써 능력 범위내에서 양허를

하는데 최대한 성의를 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관세 인하를 살펴보면, 93년에 GATT에 제출한 관세 양허안에서는 총 9,044 품목 가운데 7,389개 품목이 양허되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볼 때 평균 관세율은 17.5%에서 11.9%로 32%가 인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화학과 관련해서 관세조화와 무세화 협상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특히 화학과 관련이 많은 것이 관세조화 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12월에 수정양안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세화 품목이 의약품의 경우 4개 품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관세조화품목의 경우에는 HS 2 digit으로 볼 때 28류에서 39류로, 품목별로는 HS 4단위 기준으로 196개 품목 중 193개 품목이 참여하기로 양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조화 협상의 경우에는 화학관련 품목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혜택을 받는 항목이 바로 이 협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으로 덤핑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대만, 호주 이러한 국가들로부터 덤핑 제소를 많이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덤핑에 관한 규제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덤핑에 관한 주요 사항을 보면, 덤핑이라 해도 6개월에서 12월 이하이거나 총 거래 규모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덤핑이 아닌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해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덤핑 조사 종결 기준으로 덤핑 마진율이 2%이거나 시장 점유율이 1% 이하일 때는 무조건

종결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덤핑 관세 부과 이후에 5년 내에 덤핑 관세가 철폐 되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또 우회 덤핑 규제라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으로 단순 조립을 통해 우회 덤핑을 할 경우에 수입 부품 가격이 70% 이상이거나 부가가치가 25% 이하일 경우에는 수입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규정 중의 하나가 보조금 3개 관세 규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으로써 이것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이러한 금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협정이 발효된 후 3년 내에 철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개도국의 경우는 예외로 8년까지 철폐 기한을 다소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보조금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을 보면, 수출산업과 수입대체 소재부품 산업의 시설자금, 그리고 중소 소재부품 기업의 운전자금이나 수출산업 설비금융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계가능 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합리화 자금이나 자동화 설비자금, 첨단산업 육성자금 등이 상계가능 보조금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허용보조금이 있는데, 기술개발 지원의 경우는 허용 보조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단, 허용보조금이라 하더라도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3년마다 보조금 상계관세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지원금의 경우에도 기초 기술은

50%, 응용 기술은 25%로 보조금 지급 비율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관세 등에 대한 보복조치의 허용 기준도 이번에 설정되었는데, 보조금 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만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관세의 존속기간을 상계관세를 부과한 이후 5년 이후에 철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도국의 경우는 보복조치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긴급 수입 세이프가드 규정으로서, 세이프 가드 규정은 어떤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기존에는 특정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규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UR협상에서는 수입을 제한할 경우 선별 적용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국에 대해서는 쿼터를 감축할 수가 있게끔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으로 수출 자율규제 협정이나 시장 질서유지 협정과 같은 회색 조치를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회색조치는 앞으로는 4년내에 철폐를 해야 합니다. 단 예외 조치로 회색조치 가운데 한개의 조치에 한해서는 8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규제가 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발동 후 8년 내에, 그리고 협정이 발효된 이후 5년내에 철폐하도록 합의를 했고, 또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발동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물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재발동할

경우에는 2년이후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발동 후 3년간 보복이나 보상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항이 지적재산권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는 크게 8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특허 미공개 정보 보호, 라이선스 계약 등 8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특허의 경우 특허 보호가 기존의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 것과 의장권의 경우 국내에서는 현재 8년으로 되어 있으나 10년으로 보호 기간을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이 있는데, 이것은 개도국들에게는 유리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불공정 계약을 규제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GATT의 가장 큰 결함이었던 것으로, 실제 GATT상에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WTO가 정식으로 설치되게 됨으로써 GATT의 무역분쟁이나 그외의 문제들을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질서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이에 대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GATT체제를 확대 개편해서 WTO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 WTO가 정식으로 설립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GATT의 경우에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했으나, 여기서는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다수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해결 절차로써는 분쟁해결 구조의 일원화와 패널 절차를 신속화했습니다. 그리고 상소 제도의 도입 등으로 부당한 통상압력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석유화학산업과 관련된 UR협정 내용을 김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백이 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백 이사: UR이 12월말에 상당히 급진전해서 타결이 된다는 보도를 접하긴 했지만, 그 내용들이 저희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UR이 8차까지 오면서 표방했던 상호주의라든지 무차별주의가 다자간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타결을 보았고, 그 다음에 WTO 체제로 이행해서 상당히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석유화학 산업에 하나의 규범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연구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부와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의 주요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는 관세를 낮추고, 관련 규범을 제정해서 분쟁 해결에 원칙으로 적용될 것 같아 보입니다. 업계의 일반적인 반응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우리 산업계에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애김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통해 말씀드리면 관세 부분에 있어서

는 상당히 수출에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반덤핑 제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만, 호주, 인도 등에서 반덤핑 제소를 해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상계관세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한국 플라스틱 조합 같은 경우에는 UR이 완전 타결이 되고 금년 중 스케줄이 확정되면 외국상품의 수입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이프, 필름과 같은 가공분야에서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자구책으로 독자적인 규격을 만든다는 등 비관세 장벽을 세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섬유업체가 우리의 주종 수출 산업인데 이때까지 섬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쿼터라든지 이런 면에서 선발국으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분야에서는 개방이 됨으로써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침투를 하지 못했던 일본같은 경우에는 종량세로 인하여 관세가 30-40%가량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UR 타결 내용이 경제 각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발표된 협정문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원론적인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유 이사: 석유화학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KIET 자료에서 석유화학 분야를 가령 원유(crude oil)에서부터 가

공품까지를 대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유 정제 부문을 빼고 나프타부문부터 합성수지까지 옅스트림, 다운스트림 쪽으로 국한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 쪽으로 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업종이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생산 설비 과잉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에틸렌 베이스만 보더라도 94년도의 경우 생산능력이 325만 5천톤으로 현재의 수요를 감안할 때 약 50% 이상이 초과되어 있고, 5대 합성수지만 보더라도 생산 능력이 373만 4천톤인데 국내수요는 240만톤이기 때문에 1.6배나 됩니다. 따라서 60%이상은 수출해야 되고 수출하지 않으면 활로가 없습니다.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수출로 버티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UR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동안 석유화학 산업이 공급과잉 상태에서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많이 빚어 왔습니다. 관세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전세계적으로 봐도 가격이 가장 밑바닥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타에 의하면 지금 현재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가령 LDPE 같은 경우, 국내 local 가격이 620달러이지만 국제 가격은 605달러입니다. 여기에 관세 제비용을 포함하면 오히려 수입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HDPE도 지금 현재 local 가격이 530달러입니다만 수입가격이 오히려 높은 실정이고 실제적으로 UR에서 관세가 인하된다 해도 우리나라로 볼 때는 수입 증가 효

과가 극소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플러스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성수지쪽의 관세율은 96년까지 10.6%선에 맞추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끊임없이 인하한 덕에 현재 94년도의 관세율이 8%에 이르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국제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KIET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화학, 석유공업 부분에서의 수입에의 영향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수출 영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만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관세에 의해서 과연 얼마나 플러스 요인이 발생할 것인가는 KIET자료에 의하면 18억불의 초과 수출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수출하는 아이템이 합성수지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30-40%, 동남아가 20%이상 되고 있고, 다음으로 유럽이 10%, 일본이 10% 순입니다. 우리 합성수지 업계만 보더라도 주로 중국 시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시다시피 GATT에 가입을 안했고 GATT 가입을 목표로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지같은 경우는 스틸렌 계통의 경우를 예로 들면 28%인데 15%까지 내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중국의 시스템을 보면 관세뿐만 아니고 정치세라든지 공상세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각종 세금을 물고 있는 것이 50%나 되고, 관세가 지금 28%에서 15%로 13%로 내렸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 40%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득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중국 시장이 가장 큰 목표 시장이긴 하지만 그 시장에서 어떤 잇점을 얻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그들의 시장 구조를 보면 지금 현재 제대로 세금을 내고 정식으로 수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토라는 곳은 지금 현재 정부가 밀수를 공인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도 지금까지 세금이 없이 들어 왔습니다. 또 일종의 II를 발급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정부기관에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중국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만 UR 영향에 따른 영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체제를 갖추어야 하므로 중국 시장에서 어떠한 이득을 기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자: 의문나는 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업계에 어느 정도 지적재산권 보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석유화학 산업같은 경우에는 장치산업으로서 지적재산권이나 물질 특허 부분에 민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요? 또 한 가지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화학 산업의 경우 외국기술을 모방하거나 또는 reverse engineering을 통한 기술 습득과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요 하면 앞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어 그런 과정을 통

해 기술을 얻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면 석유화학 산업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 MFA가 GATT에 복귀되어 수출 쿼터 제안이 없어지고 화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에게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가전 제품과는 다르겠지만 혹시 서어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유통망이 외국의 선진 기업들로부터 잠식당하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백 이사: 석유화학 산업은, 대부분 미국이나 구미와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국내 회사는 일본과 합작을 한다든지 기술제휴를 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석유화학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이 자기들의 영업권이라든지 기술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만큼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연구소를 통하여 기술개발과 독자적인 촉매를 개발해서 원가를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생산 제조 기술은 받는데, 촉매와 같은 분야에서는 우리가 계속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는 우리 기술이 특허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미미하기 때문에 더 나쁜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어비스 시장개방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그 쪽은 유통구조를 보았을때 대형 수요처의 경우는 직접 수입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가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고, 서어비스 시장 유통망 개방에 따른 영향은 오히려 별로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 이사: 저희 쪽에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열스트림 분야를 포함해서 역사가 15년 이상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들과 공동으로 개발된 새로운 기술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 독자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파키스탄, 필리핀 등에 진출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품목이 5대 범용수지 중 PVC 레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용수지 분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또는 새로운 신물질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물질 특허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에 시간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돈을 지불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의 경우 촉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엄청난 원가 절감이 되는 것을 흔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독자개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산학협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그 분야에 엄청난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선진국들은 일반적인 제품에서는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특정 분야에서는 끝까지 시장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UR은 자기들이 장점이 있는 부분을 상대방에 팔

아 먹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강하게 고수할 것으로 보여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 연구원: 지적재산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밀화학 분야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유이사께서도 말씀하신 촉매는 마치 석유화학 원료처럼 사용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밀화학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적 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국이나 EC하고 상당 수준까지 협상을 진척시켜 놓은 때문에 갑작스럽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서비스 시장 개방 중 유통시장 개방이 화학 분야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높은데, 이것도 역시 화장품이나 의약과 같은 분야가 많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유통시장이 개방되면 기존에는 합작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방식을 취해왔던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직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특히 의약품이나 화장품 산업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자간 섬유 협상이 석유화학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사회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UR 타결은 양면에 상반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쪽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유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것이 MFA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UR 타결로 영향을 받는 다자간 섬유 협상으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쿼터를 비롯한 직접적인 물량

규제가 관세화됨에 따라서 직접적인 규제가 철폐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섬유업체로서는 상당히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섬유업계는 관세가 인하된 만큼 싸게 원료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플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석유화학 업계로는 현재 자급도가 낮은 때문에 UR 타결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 이사: 방금 섬유 다자간 협상의 영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 폴리에스터 섬유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 글리콜 같은 것은 자급도가 60%도 안됩니다. 현재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에서 들어오는 에틸렌 글리콜의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도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UR과 상관없이 국내 화섬업체들은 싼 가격으로 원료를 구입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95% 이상이 전부 수출용 원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는 거의 100% 환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도 에틸렌 글리콜 같은 경우 거의 100% local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달러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UR이 타결되면 국내업체들이 더 싼 가격으로 원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터 섬유업체의 얘기로는 이런 기본적인 원사나 실같은 경우에는 개방화가 됨에 따라 중국, 동남아시아 등 후발국들이 이러한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급 원단이나 직물 분야에서는 우리

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으나, 가격이 낮은 분야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UR과 국제 경쟁력

사회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UR이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경쟁력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씩은 언급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진전을 시키기로 하겠는데, 우선 현재 저희 업계 상황에 대해서 유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급 과잉 형태에 있는 우리 업계의 현황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UR 타결이 국제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이사: 얘기가 좀 반복됩니다만, 일단 산업연구 분석은, 자체 분석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분석했다는 생각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 실제적으로 수출하는 지역이라든지 그 나라의 규제를 상세히 살펴보면 그리 낙관적이만은 않다고 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전방 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에 사용되는 ABS 수지의 경우, 현재 50% 정도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예를 들면 생산 물량 16만톤의 50%를 거의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나머지 50%중 47%가 전기·전자,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전방 산업인 전기·전자, 자동차가 수출이 잘 된다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큼니다. 영향력 계수 1.8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잘 계산된 수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저희들이 현재 수출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물량이 제일 많은 곳이 중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관세가 상당한 수준까지 낮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시장에선 별 잇점이 없습니다. 이들 지역에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UR과 별도로인 GSP에 의해서였습니다. GSP와 UR은 별도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업계에서는 그 GSP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의 관세 제도라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30%라는 것은 아마 종량세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지 중에 ABS, GPPS가 자동차에 많이 들어갑니다만, 현재 4.6%인 관세를 향후 5년 내에 3.1%까지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인 경우는 관세 인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GPPS가 11.2%인데 6.5%까지 인하하는 데에 10년 동안 균등해서 내리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제품의 경우는 향후 5-10년 동안 당분간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수출하는데 있어서 관세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지 동남아 국가쪽을 보면 태국, 파키스탄 이러한 지역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런 동남아 지역의 수출 비중이 20%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를 100으로 보았을 경우 물량 면에서 약 20-30% 정도만이 관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사님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지금 타이완으로부터 의도적인 반덤핑 제소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는 단교에 따른 것입니다. 또 호주, 인도 이러한 국가들의 반덤핑 제소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UR이 발표되면 이러한 면이 다소 줄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석유화학 GATT 사무국 자체의 분석에 의하면, 95년부터 10년간 세계 소득이 매년 1%씩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 규모도 향후 10년 동안 12%가 성장할 것이라는 통계 수치를 보아도 수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어 저회로서도 장기적으로는 잇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회 업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60%는 수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치를 참조해 볼 때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로 인해서 로알티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인데, 석유화학 업체가 가야 할 방향은 정밀화학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연구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범용수지 계통은 다음 후진국에 넘겨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밀화학으로 진출해야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정밀화학 기술을 도입하는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많은 돈을 주고 관련 기술을 사든지 아니면 자체 기술을 개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사회자: 백이사님께서 현재 업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어떤 측면에서 후진국에게 영향을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이사: 석유화학분야의 관세율을 6.5%로 낮추는 것이 쉽게 타결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이 가장 국제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국내업계에 대해서는 유이사께서 말씀하셨지만, 합성수지 분야의 공급 능력이 약 550만톤이고 수요가 340만톤으로 과잉율이 40%가 됩니다. 합성원료의 경우에는 공급 능력이 약 200만톤이고 수요는 280만톤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40% 정도가 부족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성원료의 경우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UR 타결로 더욱 개방화가 진전될 것입니다. 사우디나 캐나다에 있는 공장도 한국의 합성공장을 위해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UP & DOWN의 균형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생산 능력을 확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합성고무의 경우에는 지금 생산 능력이 24만 5천톤 정도입니다. 국내 수요를 18만 9천톤으로 보면, 약 23%의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가동률이 8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동률 유지가 최대의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수출을 해서 일

정한 가동률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합성수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연간 적자가 1조에 육박한다고 신문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국내산업이 이 정도로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채산성 악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HDPE의 경우, 저회 같은 경우는 표준 원가가 74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가격은 500-550\$선으로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으나 원가와 대비할 때 70%수준의 가격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도 원가가 780\$인데 수출가는 520\$로 이것도 70%를 밑돌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공장의 안정 조업을 위해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UR 타결로 저회들이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중국권이라든지 아세아권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관세 뿐만 아니라 반덤핑 문제라든지 상계관세 문제, 이런 문제에서 더욱 좋은 플러스 효과가 생겨서 우리가 수출하던 국내 수요증가에 맞춰 국내에 팔던 여건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예를 들자면 동남아라든가 중동 등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우리 국가경쟁력이 UR의 타결에 의해서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그런 측면하고 특히 보조금 감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 연구원: UR과 우리 석유화학 산업하고 경쟁력 관계를 이야기 할 때 백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석유화학산업은 사실 그 가동률에

따라서 경쟁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백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0%정도가 되어야만 채산성이 있는데 80%를 초과하여 100%정도에 가까울수록 수익성은 아주 누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 대한 수출이 UR 타결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국내 자동차나 섬유, 전자산업 등의 수출이나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경쟁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범용수지의 경우에는 현재 과잉률이 무려 40%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범용제품의 경우에는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과 경쟁력을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아니면서도 현재 수출국까지 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주로 에탄올 이용한 설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원료로 나프타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산물이 상당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제품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긴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비교한다는 면에서는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급제품 같은 경우는, 세율이 다 음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현행 관세율 수준에 따라서 관세율이 점차적으로 인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율이 낮습니다만 세율이 낮아짐으로써 점차적으로 경쟁력있는 선진국들이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자: 보조금의 경우에 물론 직접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있겠습니다만 금융상의 혜택이라든지 세제상의 혜택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이 상당히 축소될텐데 국제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 이사: 금융을 예로 들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 중소기업에만 local 금융에 지원이 있고 지금 대기업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보조금 받는 부분은 거의 없고 단지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일부 부분에서 다른 차원에서의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것이지 특별히 대기업들이 보조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백 이사: 과거 60년대, 70년대에는 정부에서 전기도 대 주고, 길도 닦아주고, 자금도 주어서 공장을 지었는데 최근에 설립된 대산 석유화학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용수, 항만, 도로들이 전부 다 민간자본으로 댔습니다. 오히려 지역개발에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한 실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중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들의 경우를 보면 지금까지도 가공업체들의 시설자금,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금융지원들이 금지보조금에 해당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원자재에 관한 무역금융이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설비금융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되

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초기술은 75%, 응용기술은 50%로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구소에 관한 비용은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정도입니다.

사회자: 기업이 공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전기, 용수, 항만, 도로 등을 정부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혹시 금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김 연구원: 일반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한정적인 지원으로 인해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틸리티나 항만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유틸리티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만을 위하여만 제공될 때는 거기에 상계 가능한 조치가 취해질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용도로서 공공 목적이거나 공동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틸리티까지 규제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사회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가지 금지보조금을 사실상 허용 가능한 보조금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왜 우리는 부가가치율이 일본의 1/2정도 밖에 되지 않는지요? UR 타결을 논하기 전에 우리의 생산성이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 이사: 어느 분야가 1/2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자: 석유화학 분야인데 예를 들면 1인당 원유처리량이 선진국의 60% 수준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석유정제 부분이 낮으면 그것이 석유화학 분야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 중질류 분해나 탈황 시설쪽이 선진국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종업원 1인당 생산량이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생산성과 부가가치율이 낮은지요?

백 이사: 최근에는 선진국의 최신 설비를 도입한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산업 전반으로 보면 저희들이 325만톤의 에틸렌 설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연간 1인당 에틸렌 생산량은 70% 수준으로 되어 있고, 생산성 수준은 90% 정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NCC같은 경우에 나프타를 투입해서 나오는 에틸렌 수율은 거의 97-98%로 대등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설비 확장에 따라 이것을 운전하는 기능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졌고, 또 최신 설비를 도입한 때문에 운용기술이 상당히 미숙하고, 일면에는 시설자동화라든지 공정개선 부분에서의 미흡한 부분들이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유이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지요?

유 이사: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저희 회사에 NCC같은 경우 최신의 어떤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직접 인원보다는 훨씬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조직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게 일고 있는데, 간접 인원이 아직도 많은 것이 아마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가지 컨설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 부분의 인원을 대폭 줄이는 운동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일본에 비해 문제 의식이 낮고, 또한 경험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1인당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화를 비롯한 설비 자체는 최신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점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연구원: 일반적으로 일본하고 비교를 할 때, 자동차 생산성을 많이 비교하는데, 똑 같은 자동화 설비나 비슷한 공정으로 생산을 하는 데도 한국에서 생산하면 두 배가 낮고, 일본에서 생산하면 생산성이 거의 두배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거의 선진국의 공정, 기술 등을 그대로 도입해서 단지 운영만 하는 그런 수준인데, 생산성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사실 저도 궁금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신규 설비를 가동한 경험이 적어 운영 기술이 미흡하고, 생산공정이 선진국처럼 전 자동화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 이사: 저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전 자동화가 무엇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럭키는

지금 NCC에 투입되는 인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사내에서 일본 미쓰비시하고 저희 회사하고 NCC를 운용하는 1교대 인원을 한 번 체크를 해보았는데, 거의 우리는 두 배 이상의 인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DCS 시스템이라 해서 분산제어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진보된 NCS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도 아직은 NCS 시스템을 100% 가동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적 제어 시스템으로 시설을 좀 고도화하면 부가가치라든지 노동생산성은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김 연구원: 이런 요인도 한 가지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용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똑 같은 제품이지만 그 단가가 두배 내지 수십배에 이르러 부가가치면에서 훨씬 생산성이 높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입에의 파급 효과

사회자: 다시 한 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수출입에 주는 파급효과에 대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김 연구원: 실질적으로 UR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에 안겨 줄 과제는 수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서도 여러차례 언급이 되었습시다만, 현재 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40%이상이 공급 물량이 과잉 상태입니

다. 그러면 이 과잉물량을 처분해야 할텐데 이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수를 진작시켜서 국내 수요를 높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수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을 많이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수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단 기간에 몇 십% 이상 성장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그렇다면 결국은 수출로써 공급물량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데, 불행중 다행입니다만 UR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물론 최종 협상은 각국들의 특수한 사정이 감안되겠지만, 기본적인 협상의 내용대로 이행이 된다고 할 경우에, 첫번째로 관세 협상의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특히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 물론 합성수지, 특정 품목이겠습시다만, 실질적으로도 합성수지가 60% 내지 70%를 석유화학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일본뿐 아니라 미국, EC, 캐나다의 경우에도 현재 한 10% 정도 수준의 아주 높은 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무려 30%에서 60-70%까지의 초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타결된 관세조화 협상을 보면, 관세율을 각국들이 현재의 관세율 수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인하를 해가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관세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15년으로 15년간에 일정 비율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25%~10%까지는

10년, 10% 미만은 5년간에 걸쳐서 조화율인 6.5%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 이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 Kg당 28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PP의 경우가 22.4엔에서 24엔 정도입니다. 일본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경우 GSP의 혜택을 받지 않으면 관세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실질 관세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의 거래 가격을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 우리의 CIF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본의 경우에 폴리에틸렌의 경우 보통 1,000 볼 정도 하는데, 저희가 수출을 할 때는 600 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고 물으면 운반비, 어음 할인비, 서비스 비용, 그리고 유통구조상의 마진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우리가 수출을 하면 가격이 일본 시장 가격보다 40% 정도는 낮아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김 연구원: 지금까지 개도국들은 석유화학산업이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만한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양허하는 데 매우 인색했었습니다. 반면에 설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이 양허를 많이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관세조화협상인 합의가 됨에 따라서 개도국들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등 신축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세가 크게 인하되는 미국이나 EC, 일본쪽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

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은 벌크제품이기 때문에 수송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선진국들 가운데 일본의 경우,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도국들의 경우에 석유화학제품 관세율이 30%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협정에 참여할 경우, 15년간에 걸쳐 관세를 균등하게 인하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은 대부분이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UR 타결로써 이들 국가들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92년부터 아시아지역에서는 최대의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91년까지는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만, 90년대 투자자유화 조치 이후에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92년부터는 아시아 최대의 수출국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특히 최근 동남아의 동향을 보면,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작년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폭적으로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94년 중에는 GATT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만도 중국과 함께 GATT에 가입할 것으로 보여 우리의 수출 환경은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현재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합성수지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합

성섬유 같은 경우에는 상반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춘 기초유분이나 범용 합성수지, 합성고무와 같은 품목의 경우는 국내산업이 상당히 유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합성섬유 원료와 같은 경우에는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세 인하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같은 고기능성 제품의 경우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유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입 증가로 인한 시장 잠식과 더불어 국내 업계의 기술력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석유화학 제품은 반덤핑과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덤핑과 긴급수입제한 조치 상황을 보면, 호주, 미국, EC, 대만, 인도 등으로부터 여러 품목이 규제를 받고 있고, 긴급수입제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고무 제품이 호주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플라스틱 분야에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UR이 정식으로 발효되면 이러한 자의적인 규제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우리도 기존에는 수입 규제 조치로써 이러한 규제를 했으나 이제는 상대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주로 정밀화학 제품과 관련되었습니다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복제 생산 제품의 경우에는 통관을 유보시키는 조치까지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우리 석유화

학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간접적인 영향으로서는 UR이 타결되면 자동차나 전자, 섬유,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 이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된 자료를 보면, UR 타결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체로 49억불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약 5%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화학, 석유, 고무쪽에 18억불 정도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2년 실적이 약 80억불인 것을 감안할 때, 약 20%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유망산업으로는 자동차를 꼽을 수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가로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자동차 기술도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전분야는 일본처럼 첨단은 아니지만 UR이 타결되면 동남아 지역에 더욱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해 봤을 때 수요가 상당히 늘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부문에서 기대되는 20% 정도의 플러스 효과는 상당히 의욕적인 수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가동률도 올라갈 것이고,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무역수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우리 업체들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면 계속 일정 수준의 가동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료 측면에서 우리는 산유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운반 비용의 잇점을 갖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 이사: 석유화학 산업이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국내외가 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단련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저희 석유화학 업체 입장에서는 UR 타결이라는 것이 별로 두려울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저희로써는 전방산업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과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UR 타결로 이익을 본다는 것이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그들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통제 수단이 있고, 또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는 데는 범용수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기대할 만한 곳은 동남아 시장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은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98년도가 지나야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94년도에 수출이 증가한다고 해도 적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조금만 물량이 과잉되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반면 100이라는 수요 물량에 비해 99만 생산되면 1% 때문에 가격이 30~50%씩 폭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UR 체결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R 타결 이후의 대응 방안

사회자: 사실 UR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도 가져다 주고 또 위협적인 요인도 됩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 방안 내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 정부 또는 업계의 입장에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과잉 상태가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로도 과잉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먼저 이러한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느냐에 따라 많은 이익을 보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연구원: 여러번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공급과잉 해소가 석유화학 업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업계간에 제휴를 통해서 가동율을 높이고 수급을 조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설비를 폐기한다든지 감축함으로써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공급 과잉 상태가 단기적일 경우에는 그

보다는 업체간 제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생산을 위탁하고 상호 위탁을 통해서 생산의 절대율은 줄이면서 가동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이 향후의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든지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현재의 공급 과잉 해소에 UR이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로 일본 시장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장벽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UR이 타결됨에 따라서 그 규제들이 상당량 줄어들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 우리 주요 수출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확대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해야 되겠고, 아울러 국내외 기업간에도 상호 협조를 통해 수급을 조정하고, 기술정보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물량위주의 범용제품 생산 구조에서 고기능성 정밀화학 제품으로 생산 구조를 점차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이들 제품을 국산화하는 데 노력해야겠고, 또한 앞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첨단화학 산업 분야에도 적극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 화학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UR 타결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국제규범과 상치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편하고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규제가 강화되는 세계 금융상의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 제도와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제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UR 체제하에서 무역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해야겠습니다.

백 이사: 저는 공급과잉 대책이 있느냐 대책이 무엇이나 하는 점에서 일본이 하고 있는 대응 방안을 물어 보았습니다. 현재 신문 보도에 의하면 보조 기간을 1년에 40일씩 의무화하자거나 가동시간을 줄이고 정비하는 데 활용을 하자는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고, 국내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량을 줄이고 수출을 더욱 많이 하자는 단기적인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각사마다 유사한 grade들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제품 생산을 분담하여 전문화함으로써 생산 품목 수를 줄이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사는 블로 그레이드를 만들고 B사는 파이프를 전문으로 해서 그 분야만 파는 식의 협조를 통해서 생산성 제고 내지는 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하자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콤플렉스나 단지별로 업체들이 협조하게 된다면 보다 자연스럽게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하면 원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보다 보다 획기적인 방법

으로 일본이 85년도에 산업구조 조정법을 통해서 불황 카르텔 형식의 공판제도를 설립하여 2~3년 동안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본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업계에서나 협회에서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데 필요한 신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대산단지가 후발로 나온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급이 과잉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 삼성이나 현대가 서고 난 뒤에서 상당히 많은 다운스트림 공장들이 설립되었고, 크랙커들이 준공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첫째는 업계간의 협조 내지 신뢰가 부족했고, 또한 정부 정책의 원칙이 확실하지 않았고, 조정 역할 역시 부족했다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현재의 공급 과잉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업계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무한 경쟁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나 공정거래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카르텔 구성에 따른 물량 제한이 국내 가공산업이나 제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고, 가공업체들도 원료 가격이 하락하면 거기에 따른 자신들의 가공비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가격 수준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낮습니다. 오프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그리고 원료 공급업체와 가공 업체간의 수치 균형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원료 공급업체의 오프스트림에 대한 채산성 악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칙이나 논리에 얽매어 지원 내지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유 이사: 공급과잉으로 인한 물량은 수출해야 한다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적자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할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일본은 정부가 카르텔을 특별히 인정해 줘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안된다는 자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단은 범용쪽에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지만 자기가 개발한 특수 grade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마다 특수 grade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선진국형으로 빨리 탈바꿈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밀화학은 제조원가가 50%이하로 되는, 그야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실체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진국에서 기술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90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바이에르와 같은 업체는 정밀화학 비중이 약 40~50% 정도 됩니다. 우리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 이러한 목표를 갖고 사업 구조를 개편해 나아가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에서도 현재 범용 grade에 대한 투자 붐이 일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일본의 부품 기지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필리핀도 투자를 하고 있어 앞으로 범용 grade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부가가치화나 R&D를 통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전망이 어둡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투자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는 많은 해외 투자를 하

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진국으로 해외 투자를 하면, 후진국에서는 관세로서 아이템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UR이 타결되고 발효되면 관세 장벽에 의한 보호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업상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장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